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Eixan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叡山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叡山版의 概要 | 6.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叡山版 古活字의 活字製作技術 | 7. 結 論 |
| 4. 叡山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 초 목 >

- (1) 叡山版이란 比叡山에 소재한 여러 사찰에서 1601년부터 1645년까지 木活字로 인출한 90여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세련되지 못하여 중상급이다.
-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인데, 빼놓아진 문자가 다소 있고, 墨色 濃淡이 균일하지 못한 점이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이중 인출 등이 적지 않게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중급에 해당한다.

要語: 예산판, 고향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이 논문은 2012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2년 12월 2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 (1) The Eixan edition refers to around 90 editions printed from wooden type by several temples located in Hieizan between 1601 and 1645.
-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o some extent, yet its quality is not sophisticated enough and near upper-middle grade.
-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Yet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and in some pages, the tone of ink color is not consistent. The technical quality is upper-middle grade.
-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with substantial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frequent spreads of chinese ink and intermittent double printing. The technical quality is lower-middle grade.
-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Key words: Eixan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1. 緒論

고대의 인쇄는 목판인쇄와 활자인쇄로 대별된다. 목판인쇄에 대하여는 인쇄술의 발명국답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발달 양상은 물론 오늘날의 연구 수준에 있어서도 단연 중국이 앞선다. 활자인쇄에 대하여는 비록 중국이 발명하긴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과 발달 양상 및 오늘날의 연구에 있어서는 단연 한국이 앞선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면서 지리적으로도 밀접한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한국이나 중국의 고허자 인쇄와 비교하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일본만의 특징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된 일본의 고허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¹⁾ 즉 아직까지 일본의 고허자에 대한 연구 영역은 불모지인 실정이다. 따라서 동양 삼국 고허자 인쇄의 진일보한 비교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京都 교외의 比叡山에 위치한 여러 사찰이 간행한 叡山版 고허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허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예산판의 개요·활자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예산판 전체

1) 曹炯鎮,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²⁾ 활자본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경우, 연구자에 따라 관점과 안목의 차이에 의하여 그 평가 결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연구자가 유사한 기술 수준의 여러 활자본을 분석할 경우, 분석할 때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분석 결과와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연구자가 동일한 판본을 시차를 두어 여러 번 분석할지라도, 그 평가 결과가 일치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이 되는 활자본의 기술 수준은 변함이 없는데, 연구자의 안목 또는 분석 시기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내용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 기술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수치화된 표준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평가표준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타당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叡山版의 概要³⁾

2.1 叡山版의 定義

2.1.1 叡山版의 刊行 地域

예산판이란 京都 교외의 比叡山에 소재한 止觀院·寶幢院·四季講堂 등의

2)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3)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之研究』(東京: 共立社, 1967), 300-310, 725-732; 長澤規桓也, “叡山 活字版について,” 『書誌學』 新6號;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東京: 汲古書院, 1990), 410-411.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주의할 점은 川瀨一馬가 『古活字版之研究』를 집필하기 위하여 古活字版을 조사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한 결과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다.

사찰에서 간행한 서적을 지칭한다. 비예산 지역은 지방 사찰로서의 활자 인쇄가 가장 성행하였던 곳이라 할 수 있다. 京都에 가까워서 재력도 풍부하고, 승방과 학생도 많아서 많은 서적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간행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예외적으로 書肆에 위탁하여 간행한 경우가 있었다. 寬永 2년(1625) 附訓植版本인 『科註妙法蓮華經鈔』의 활자는 四條寺町(서사)의 中野市右衛門가 寬永 元년(1624)에 간행한 『天台名目類聚鈔』의 활자와 같은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2.1.2 叡山版의 刊行 主體

간행자 또는 간행처는 크게 東塔지역 · 西塔지역 · 橫川지역으로 3대별할 수 있는데, 각 지역의 사찰은 다음과 같다.

1) 東塔 地域

東塔月藏坊 · 止觀院佛母谷 · 西谷覺林坊 · 無動寺 · 淨土院 · 紅葉溪 · 山門遺教院 · 千光院 · 龍珠院 · 東塔南谷淨教房.

2) 西塔 地域

山門寶幢院 · 西塔北谷正觀院 · 西塔南谷正光院 · 西塔南尾 · 山門正藏院 · 常樂院 · 金台院.

3) 橫川 地域

四季講堂.

2.1.3 叡山版의 刊行 時期

예산관 고허자 인쇄의 시작은 慶長 6년(1601) 경이다. 그 후 元和(1615-1623), 寬永년간(1624-1643) 전반의 20여년이 가장 활발하였다. 寬永 11년(1634)까지

이어진 활자 인쇄의 이후에는 목판을 이용하였는데, 예외적으로 正保 2년(1645) 『授決集』과 넓은 의미의 叡山版인 寬永 19년(1642) 幡州書寫山松壽院의 『法華經文字聲韻音訓篇集』·『義例私註』가 있다.

2.1.4 叡山版의 刊行 手段

예외 없이 모두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이들 목활자는 동중 활자가 아닌 판본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간행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이며, 후기로 갈수록 활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2.2 叡山版의 數量과 版式

2.2.1 叡山版의 數量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예산판의 서적은 다음과 같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판본은 19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3종이다.

叡山版 古活字本 目錄⁴⁾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⁵⁾	비고
1	科註妙法蓮華經	8-10	慶長16年(1611)東塔月藏坊印本	(2)三Ab3
2	科註妙法蓮華經鈔	8-12	寬永2年(1625)附訓植版印本	(4)31-23-378
3	科註天台四教儀	6-4	慶長6-8年(1601-3)間西谷覺林坊秀憲印本	
4	觀普賢經記	2-2	元和寬永年間印本	

4) 『增補古活字版之研究』에 약서명으로 기록하기도 하여 정서명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5) 일본의 판본사항 기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⁵⁾	비고
5	觀世音經疏	2-2	元和4年(1618)印本	
6	觀世音玄義	2-1	元和年間印本	
7	觀心略要集	2-2	寬永3年(1626)印本	
8	觀音兩卷疏		10行20字印本	
9	俱舍論		9行17字印本	
10	俱舍論訟釋疏	29-10	寬永2年(1625)印本	
11	俱舍論訟疏	29-9	寬永2年(1625)印本	
12	俱舍論訟疏論本		[慶長年間(1596-1614)]印本	
13	俱舍論訟疏鈔		[寬永2年(1625)]附訓植版11行印本	
14	俱舍論訟疏鈔		無刊記附訓植版14行印本	
15	起信論		7行17字印本	
16	起信義記		10行20字印本	
17	金鉉論		10行20字印本	
18	金鉉私記		10行20字印本	
19	唐決集	2-2	寬永3年(1626)印本	(1)WA7-58
20	大方廣圓覺略疏注經	4-4	寬永3年(1626)印本	(7)183- 1477
21	大部四教義		11行20字印本	
22	大乘止觀法門	2冊	寬永元年(1624)印本	
23	大藏一覽集	10-11	元和寬永年間印本	(2)三Ab26 (2)三Ab45 (4)31-1-306 (6)Aoo-5814 (7)183- 1437
24	遁麟		10行20字印本	
25	摩訶止觀科解	10-26	慶長6-8年(1601-3)間東塔月藏坊印本	(2)三Ab51
26	摩訶止觀略決	1-1	寬永3年(1626)印本	
27	末法燈明記	1冊	元和年間印本	(7)188.3- 13(서영)
28	名義集		10行20字印本	
29	毛詩		慶長10年(1605)頃東塔月藏坊印本	
30	無量壽經論註記	5-5	寬永4年(1627)印本	
31	無量義經注		10行20字印本	
32	無量壽經註釋	3-3	[慶長年間]印本	
33	文句疏記		7行17字印本	
34	文心解		14行20字印本	
35	梵網古迹		10行20字印本	
36	法界次第		10行19字印本	
37	法華去惑	4-2	元和4年(1618)印本	(4)31-20-376
38	法華經論	1-1	寬永2年(1625)印本	
39	法華經文字聲韻音訓篇集	3-3	慶長18年(1613)幡州書寫山松壽院快倫印本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⁵⁾	비고
40	法華文句科解	10-22	[慶長9年(1604)頃]東塔月藏坊印本	(2)三Ab50
41	法華文句記箋難	4-合2	寬永3年(1626)印本	(1)WA7-227 (4)31-18-360
42	法華三大部私記 ⁶⁾	30冊	慶長16年(1611)印本	
43	法華疏私記	10-10	慶長16年(1611)印本	(4)31-24-380
44	法華疏私記	10-10	元和寬永年間印本	(7)183- 155(서영)
45	法華秀句	3-5	元和寬永年間印本	
46	法華秀句		10行20字印本	
47	法華玄義科文	10-17	慶長9年(1604)東塔月藏坊印本	(2)三Ab49 (8)特262-2(1 21)
48	菩薩戒義記	2-1	元和4年(1618)印本	(4)31-18-358
49	輔正記		16行18字印本	
50	補注		18行22字印本	
51	普賢經記		10行20字印本	
52	佛制比丘六物圖	不分-1	[元和年間]印本	(5)余丙180(서영)
53	佛祖統記		11行20字印本	
54	備檢		16行18字印本	
55	私記		10行20字印本	
56	四念處	4-2	元和寬永年間印本	
57	山家義苑		10行20字印本	
58	釋氏要覽		10行20字印本	
59	授決集	2-2	元和4年(1618)山門寶幢院印本	(1)WA7-121 (2)三Ab19
60	授決集		正保2年(1645)印本	
61	隨身鈔	4-4	寬永2年(1625)印本	
62	守護國界章	3-9	元和3年(1617)西塔北谷正觀院印本	
63	守護章		11行20字印本	
64	心地教行決疑	6-6	元和4年(1618)西塔南尾印本	
65	十如是義私記·自行略記	2-1軸	寬永年間印本	(4)31-20-372 (7)188.3- 17
66	涅槃經疏	15-15	[元和寬永年間]印本(叡山版에 기초한 印本)	(2)三Ab31
67	涅槃經疏	15-15	元和3年(1617)比叡山東塔印本	
68	往生要集抄	3-8	寬永3年(1626)附訓植版印本	
69	要法文	2-2	寬永3年(1626)印本	
70	維摩經略疏	10-10	元和2年(1616)印本	(3)子194-11
71	維摩疏		11行20字印本	
72	六帖要文	5-5	寬永9年(1632)山門寶幢院印本	
73	義例私註	2-2	寬永19年(1642)幡州書寫山松壽院快倫印本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⁵⁾	비고
74	義讚		11行20字印本	
75	一乘要決	3-3	元和4年(1618)印本	
76	雜問答		寬永3年(1626)以後印本	
77	箋難		20行20字印本	
78	傳法正宗記· 正宗定祖圖· 傳法正宗論	9- 1-6 2-	寬永7年(1630)印本	(1)WA7-134 (2)三.Ab30
79	助覽		20行20字印本	
80	宗要柏原案立	6-6	寬永9年(1632)止觀院佛母谷附訓植版印本	(4)31-19-363
81	左傳		慶長10年(1605)頃東塔月藏坊印本	
82	註無量義經	3-1	寬永3年(1626)印本	
83	止觀輔行		7行17字印本	
84	止觀義例		慶長20年(1615)印本	
85	止觀義例隨釋	6-3	元和2年(1616)西塔南谷正光院印本	
86	指要抄		10行20字印本	
87	眞言宗教時間答	4-4	元和4年(1618)無動寺印本	
88	集註		11行20字印本	
89	集解		10行20字印本	
90	集解要文	8-8	寬永3年(1626)印本	
91	天台名目類聚鈔	11冊	元和4年(1618)山門寶幢院附訓植版印本	
92	天台法華宗牛頭法門要纂	1-1	元和5年(1619)印本	
93	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8-1	寬永3年(1626)印本	(1)WA7-160
94	天台四教儀	12-12	元和4年(1618)印本	
95	七帖要文	7-7	寬永元年(1624)印本	
96	顯性錄		10行19字印本	
97	玄義釋籤		7行17字印本	
98	玄箋備檢	4-4	寬永3年(1626)印本	
99	慧暉		10行20字印本	

비고: 실사 판본의 소장처(번호) 청구번호와 서명을 참고한 것. (1)=(日本)國立國會圖書館, (2)=東洋文庫, (3)=內閣文庫, (4)=大東急紀念文庫, (5)=大谷大學圖書館, (6)=東京大學總合圖書館, (7)=天理大學附屬圖書館, (8)=京都府立總合資料館.

이상에서 보면 총 99종인데, 이들의 크기는 1권 1책에서 30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소형의 저술이 많다. 그 중 「俱舍論疏鈔」·「法華疏私記」·「授決集」·「涅槃經疏」 등 4종은 2회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法華三大部私記」는 「法華疏私記」·「法華止觀私記」·「法華玄義私記」의 총서명이다. 따라서 인출년도가 같은 「法華疏私記」는 同版일 가능성이 있다.

2.2.2 叡山版의 版式 上 特徵

실사자 19종과 서영 3종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9종, 없는 경우가 10종이다.
- 2) 匡廓 형식: 사주쌍변이 7종, 사주 단변이 10종, 광곽이 없는 경우가 2종이 있다. 좌우쌍변은 없다. 광곽은 慶長년간에는 쌍변, 元和년간에는 쌍변과 단변이 반반, 寬永초년에는 광곽이 없는 판본도 나타난다.
- 3) 界線 유무: 있는 경우가 5종인 반면에, 없는 경우가 14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4) 行數: 반 엽에 9행 미만이 2종, 10행이 8종, 11행이 8종, 12행이 1종으로, 대부분이 10~11행이다.
- 5) 字數: 18자 미만이 1종, 19자가 4종, 20자가 13종, 17~20자로 고르지 않은 경우도 1종이 있다. 대부분이 20자이다.
- 6) 小註 형식: 쌍행 형식이 1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종(『宗要柏原案立』)만 단행 형식이다
- 7) 版口 형식: 대흑구가 16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구 3종, 화구 1종이 있다. 『宗要柏原案立』은 판구 형식이 백구와 화구를 혼용하고 있다.
- 8) 魚尾 형식: 3엽화문쌍어미가 13종, 흑쌍어미가 4종, 1.5엽화문쌍어미도 2종이 있으며, 어미가 없는 경우도 1종(『宗要柏原案立』)이 있다. 『唐決集』은 흑어미와 3엽화문어미를 혼용하고 있다.
- 9) 기타 특징: 판심을 이루는 판구와 어미가 일체식으로 된 경우가 있다. 양측의 계선을 포함하기도 하고(『摩訶止觀科解』)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일체식 판심의 판심제는 『摩訶止觀科解』 1종만 본문용 활자를 사용하였고, 기타는 모두 小字 활자로 조판하였다. 판심 내의 잡목이 직사각형 홈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法華文句科解』).

일체식 판심에서 판심과 계선이 분리된 증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1) 『法華文句科解』 卷1之1, 제7·11·26·30엽에 반복 사용된 판심(계선

포함)이 제40엽에서는 계선 없이 판심만 사용되었고, 같은 판심이 다시 卷1之2, 제6·9·22엽 이하에 계선과 함께 반복 사용되었다. 이는 판심과 계선이 분리된 명백한 증거다.

(2) 흑구와 어미의 묵색과 판심 계선의 묵색이 다르다.

(3) 판심 계선이 판구·어미와의 높이의 차이로 인하여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음각 활자를 사용하고 있는 판본으로 3종이 있다(『大方廣圓覺略疏注經』·『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

본문의 행간에 片假名 小字雙行의 附訓植版과 활자의 크기가 소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片假名 訓點의 附訓植版은 예산판이 처음 시도한 조판법이며, 元和 4년(1618) 寶幢院의 『天台名目類聚鈔』와 寬永2년(1625)의 『科註妙法蓮華經鈔』 등 전체에 6종이 있다.

3. 叡山版 古活字의 活字製作技術

예산판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자양이 일치하지 않으나 매우 유사하여 세련된 수준의 경우가 있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維摩經略疏』·『傳法正宗記』).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가 있어서 세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부조화가

섞여있는 것도 있다(『科註妙法蓮華經』·『科註妙法蓮華經鈔』·『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大藏一覽集』·『法華去惑』·『法華文句記箋難』·『法華疏私記』·『菩薩戒義記』·『授決集』·『十如是義私記』·『涅槃經疏』·『宗要柏原案立』·『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음각활자의 목적을 보면 사방이 방정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大方廣圓覺略疏注經』).

오래 사용하긴 하였으나, 활자의 높이와 사면이 방정한 활자다(『唐決集』).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모든 판본에서 필획의 시작·마무리·돌아가는 곳 등의 윤곽에서는 역력하고,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도 간혹 보인다.

필획을 다듬지 않은 듯한 다소 거친 모습의 경우도 있다(『授決集』).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모든 판본에서 목즙이 과다하게 도포된 문자가 아니면 크고 작은 것을 시종 쉽게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필획이 결실된 것으로 착각할 만큼 목리가 두드러진 경우가 간혹 있다. 『法華文句科解』 卷1之1, 제3엽下, 7-18의 “中”, 제7엽下, 4-5의 “之”, 제9엽下, 1-7의 “此”, 제11엽上, 4-13의 “明”, 제12엽下, 8-5의 “如”, 제13엽下, 8-19의 “師” 등 이하 꾸준히 보인다.

필획이 결실된 문자도 꾸준히 보인다. 『法華文句科解』 卷1之1, 제7엽上, 4-5의 “品”, 제7엽上, 4-7의 “同”, 제12엽下, 3-2의 “何”, 제14엽上, 3-4의 “細” 등이다. 『法華玄義科文』에서도 보인다.

이밖에도 필획이 굵고 윤곽과 서체가 퇴화되어 목리가 역력한 문자가 간혹 보인다. 제법 사용한 활자다. 심미감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唐決集』·『法華去惑』·『法華文句科解』·『法華文句記箋難』·『法華疏私記』·『菩薩戒義

記」·「授決集」·「十如是義私記」·「涅槃經疏」·「宗要柏原案立」·「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목색이 금속 재질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목질이 단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피면, 모든 판본에서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는 있다. 동일 문자의 자양은 판본에 따라서 유사하기도 유사하지 않기도 한다.

3.2.2 文字의 美感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필획도 균정하여 힘이 넘치는 해서체의 심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필획 시작 부분의 독특한 필법도 잘 표현하고 있다. 다만 필획이 돌아가는 부분을 모나게 조각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도 문제라기보다 서체의 특징으로 보인다(「摩訶止觀科解」).

세련되지는 않으나, 필획은 균정한 편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요소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자양은 다소 차이 나지만, 소박한 솜씨에 힘 있고 강건한 해서체의 심미감을 다소 살리고 있다. 필획이 굵거나 가는 문자가 섞여 있다(「科註妙法蓮華經」·「傳法正宗記」). 자적으로 나타난 문자의 크기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다(「大藏一覽集」).

문자의 심미감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고명하지는 못한 경우가긴 하나, 우수한 편에 속한다(「維摩經略疏」).

서체의 균형은 유지하고 있으나, 필획은 균정하거나 매끈하지 못한 편이다. 부

드럽고 힘 있는 해서체를 표현하고 있는 문자가 드물게 보이긴 하나, 대체로 다듬어지지 않은 도각 흔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자양이 제법 차이 난다. 세련도도 제법 떨어져서 심미감을 논하기에 역부족이다(『科註妙法蓮華經鈔』·『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大藏一覽集』·『法華去惑』·『法華文句記箋難』·『法華疏私記』·『菩薩戒義記』·『十如是義私記』·『涅槃經疏』·『宗要柏原案立』·『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간혹 필획이 굵고 윤곽이 퇴색한 경우와 목리가 역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사용한 활자다. 서체 균형도 대체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사용으로 마모되면서 부조화의 요소가 대부분의 문자에 나타나고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大方廣圓覺略疏注經』·『法華文句記箋難』·『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3.3 기타

3.3.1 例外的인 活字

간혹 서체와 도각 흔적이 역력히 다른 문자가 혼재하거나(『菩薩戒義記』), 필획이 굵고 윤곽이 퇴색한 경우와 필획이 가늘고 윤곽이 선명한 경우가 섞여 있어서 보각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涅槃經疏』).

문자의 크기가 다소 크거나, 크기는 비슷한데 마모도가 다른 경우가 섞여 있어서 2회 이상의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宗要柏原案立』).

3.3.2 木板의 並用

『傳法正宗記』가 유일하다.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3종(『科註妙法蓮華經』·『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4. 叡山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모든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미세한 치우침이 간혹 드물게 보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꾸준히 보인다.

다소 삐뚤삐뚤하면서 구불구불한 현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大方廣圓覺略疏注經』·『涅槃經疏』·『宗要柏原案立』).

4.1.2 橫列

본문의 활자를 자간 거리 없이 밀집 조판하였음에도 자적은 가지런하며, 드물게 약간의 굴곡이 있다. 천두의 科文과 소자에서 다소의 굴곡이 있다(『科註妙法蓮華經』·『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法華文句記箋難』·『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반면에 자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가지런히 맞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十如是義私記』).

이에 비하여 다소의 오차로 굴곡이 제법 보이기도 하고(『法華去惑』), 특히 문자가 없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 굴곡이 제법 보인다(『大藏一覽集』). 片假名 訓

點용 활자를 식자한 경우는 가지런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宗要柏原案立』).

4.2 字跡의 安置 角度

기술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삐뚤어진 정도가 경미하여 대체로 바로고 눈에 떨 만큼 삐뚤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傳法正宗記』). 두드러지게 삐뚤어진 문자가 엽 당 평균 1~2자 정도에 불과하거나(『唐決集』·『摩訶止觀科解』·『十如是義私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3~4자 정도(『法華文句科解』) 또는 3~4자 정도이나, 판본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술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大方廣圓覺略疏注經』·『授決集』·『涅槃經疏』).

삐뚤어진 문자가 4~5자 정도이지만, 상태가 다양하여 정연하지 못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도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 삐뚤어진 문자가 약간 나타나고, 두드러진 경우는 대자 1~2자, 소자 3~4자, 총 5~6자 정도 보이기도 한다(『科註妙法蓮華經』·『法華去惑』·『法華疏私記』·『菩薩戒義記』). 삐뚤어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수량은 적지 않게 보여서 두드러진 경우가 10자 정도에 이른 경우도 있다(『大藏一覽集』).

거의 대부분의 문자가 반듯하지 못하고 약간씩 다양하게 틀어져 있어서 정연하지 못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며, 두드러진 경우는 6~7자(『法華文句記箋難』), 또는 10~14자 정도에 이른 것도 있다(『宗要柏原案立』).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의 水平

모든 판본에서 공통적으로 부분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大小字에서 간혹 드물게 보인다. 묵색이 연한 경우도 간혹 보이는데, 경중이 섞여있으나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이 점에서 활자의 높이가 10mm 이상 되는 사면이 방정한 활자이며, 조임식 조판법으로 인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唐決集』·『傳法正宗記』).

4.3.2 印出面의 水平

인출면으로부터 반영된 목색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정도의 차이를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목색의 농담이 대체로 고른 경우가 있다. 전체에 걸쳐서 엽에 따라 균일하거나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흔재하고 있는데(『科註妙法蓮華經』·『大藏一覽集』·『法華去惑』·『法華玄義科文』·『菩薩戒義記』·『授決集』), 판본의 중반 이후로 갈수록 편차가 점점 커지기도 한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

목색의 농담이 제법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엽에 따라서는 농담 차이가 다소 적은 경우도 있지만, 진한 문자와 연한 문자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자본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다(『科註妙法蓮華經鈔』·『法華文句記箋難』·『十如是義私記』·『涅槃經疏』·『宗要柏原案立』).

진한 목색을 사용하였는데, 드물게 지나치게 진한 엽이나 연한 엽이 보이긴 하나, 대체로 고른 편이다. 광곽이 간혹 여러개 인출된 경우가 있다(『唐決集』·『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목색 농담은 예외적으로 거의 안 보일 듯하거나 연한 문자가 있고 간혹 인출되지 않은 광곽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균일하다. 간혹 균일한 엽은 목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傳法正宗記』).

광곽과 계선은 잘 인출된 경우도(『科註妙法蓮華經』·『摩訶止觀科解』·『十如是義私記』·『涅槃經疏』) 인출 안 된 경우도 있고(『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광곽과 활자의 높이가 달라서 광곽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곳이 간혹 보이기도 하고(『科註妙法蓮華經鈔』·『大方廣圓覺略疏注經』·『法華文句記箋難』·『維摩經略疏』·『宗要柏原案立』), 단번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大藏一覽

集」·「法華去惑」·「菩薩戒義記」·「授決集」).

계선이 없는 판본에서 주로 권말제 엽의 문자가 없는 부분에 5mm 정도 폭의 굵은 계선이 인출된 모습이 보인다(「維摩經略疏」). 이는 판식에는 無界로 나타나지만, 조판 시에는 활자의 행간에 높이가 낮은 계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대부분의 판본에 네 꼭지점이 제법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양호한 경우는 1~2mm 정도(「科註妙法蓮華經」·「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또는 1~4mm 정도로 벌어진 것이 있다(「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文句記箋難」·「法華疏私記」·「授決集」·「涅槃經疏」·「維摩經略疏」).

다소 심한 경우로는 3~5mm(「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大藏一覽集」·「法華玄義科文」·「菩薩戒義記」·「傳法正宗記」) 또는 4~6mm도 있고(「科註妙法蓮華經鈔」·「法華去惑」), 거의 예외로 9mm도 있다(「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卷5, 제2엽下).

예산판은 모든 판본에서 조림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조림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잡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좌우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11~25mm 정도의 광곽 밖에 고정용 나무못(썰기, 대체로 가로 * 세로 = 5~11 * 9~14mm)을 1~2개(인판 좌변 1~2개, 우변 마감 1개) 박아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大方廣圓覺略疏注經」·「法華玄義科文」). 이 때 마감용 나무못으로 활자를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였다(「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1, 제49엽下左邊에 활자 “有”의 상반부 사용).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5~20mm 정도의 광곽 아래에 고정용 나무못(대체로 가로 * 세로 = 11 * 6mm)을 3~4개 정도 박아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涅槃經疏』·『傳法正宗記』 卷4, 제8엽上7行).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는 35mm 정도의 광곽 위에 고정용 나무못(대체로 가로*세로 = 12*6mm)을 2개 이상 박아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法華疏私記』).

4.5 기타

4.5.1 界線 격자

본문 대자의 양옆에 계선과의 격리용으로 1.5~1.8mm(『科註妙法蓮華經』) 또는 2.3mm(『法華玄義科文』) 폭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小註雙行과의 行幅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발견하지 못하였다.

4.5.3 校正의 失手

발견하지 못하였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3종(『科註妙法蓮華經』·『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5. 叡山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の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연한 엽의 유무에 따라서 농담차가 좌우되었다. 묵색이 진하면서 연한 엽이 없을 만큼 균일한 경우가 있다(『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묵색이 진하거나 부드러운 엽이 공존하고 있지만, 농담 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科註妙法蓮華經』·『科註妙法蓮華經鈔』·『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法華去惑』·『法華文句記箋難』·『授決集』·『涅槃經疏』·『維摩經略疏』), 약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大藏一覽集』·『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玄義科文』).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묵색이 진하거나 부드러운 엽이 공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착묵이 균일하지 못하여 제법 심한 농담차가 보인다(『法華疏私記』·『十如是義私記』·『宗要柏原案立』). 더 나아가 묵즙이 과하면서도 착묵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먹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 상태도 있다(『菩薩戒義記』).

5.1.2 葉 간의 濃淡差

전체적으로 간혹 연한 엽이 섞여 있어서 엽에 따라 농담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드물게 아주 진하거나 연한 엽이 있어서 편차가 보이기도 하고(『科註妙法蓮華經』), 예외적일 만큼 연한 엽이 있는 경우도 있다(『傳法正宗記』).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 힘껏 인출하여 기술 수준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판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묵색이 연한 엽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엽에서 경중이 혼재한 번짐 현상을 볼 수 있다. 부분 번짐이 적지 않고, 엽 전체가 거의 번진 경우도 간혹 있다. 얇은 책지에 밀대로 힘껏 인출한 결과, 요철이 형성되면서 필획 측면이 반영되어 굵고 진하게 나타나거나 필획간의 묵즙이 번진 경우도 있다.

기타의 현상으로 번짐 현상이 각 엽의 상하면에 모두 있지만, 상면에서 두드러지고, 하면은 번짐이 적은 대신 문자간 농담차가 큰 경우가 많다(『法華文句科解』). 인출자의 습관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墨丁이 된 문자도 있을 만큼 번짐의 정도와 수량이 다소 심한 경우가 있다(『大方廣圓覺略疏注經』·『摩訶止觀科解』·『傳法正宗記』·『宗要柏原案立』). 아울러 착묵이 안되어 두 번 인출한 곳도 보인다(『法華疏私記』).

한 문자에서도 필획에 따라 농담이 차이나는 등 착묵 상태가 대체로 균일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科註妙法蓮華經』·『唐決集』). 조판기술을 상쇄하고 있다.

드물지만 연한 엽에서는 착묵 상태가 불완전하여 다소 연하게 찍힌 문자도 섞여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法華去惑』·『菩薩戒義記』). 필획 간 번짐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涅槃經疏』).

5.2.2 墨汁의 쏠림

전반적으로 모든 판본에서 쏠림 현상이 적지 않다. 묵색을 진하게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 중에 쓸림 현상이 다소 적은 경우가 있다(『大藏一覽集』·『法華去惑』·『菩薩戒義記』·『涅槃經疏』·『宗要柏原案立』).

5.2.3 字跡의 깨짐

작목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목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는 없다.

5.3 雜痕과 雜墨

대부분의 판본이 목색을 진하게 사용한 결과, 잡흔과 잡묵의 정도가 작지 않고 수량도 적지 않아서 대소량이 꾸준히(『法華疏私記』) 또는 간혹 보인다(『科註妙法蓮華經鈔』·『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大藏一覽集』·『法華去惑』·『法華文句記箋難』·『菩薩戒義記』·『十如是義私記』·『傳法正宗記』·『宗要柏原案立』).

거의 예외적인 현상일 만큼 드물게 보이거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없는 경우도 있다(『授決集』).

5.4 二重 印出

목즙을 인판에 도포한 후 책지를 인판 위에 얹을 때, 부주의하여 이중으로 인출된 곳이 여러 판본에서 나타나고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大藏一覽集』·『摩訶止觀科解』·『法華文句科解』·『法華疏私記』·『法華玄義科文』·『十如是義私記』).

이러한 현상이 특히 많은 경우도 있고(『菩薩戒義記』), 아주 드물거나(『大方廣圓覺略疏注經』·『維摩經略疏』·『宗要柏原案立』) 없는 경우도 있다(『法華去惑』·『授決集』·『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판본이 목즙을 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예상컨대 소장자의 허가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5.2 印出의 強度

인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인출하여 책지에 요철이 형성 되면서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될 정도였다.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목색은 진하지만, 착묵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과한 부분, 부족한 부분, 불완전한 부분 등이 모두 보인다. 힘껏 인출하여 번짐, 필획 측면 반영, 필획 간 번짐 등이 적지 않고, 거의 목정이 된 경우도 있다(『科註妙法蓮華經鈔』·『唐決集』·『大方廣圓覺略疏注經』·『法華文句記箋難』·『十如是義私記』·『宗要柏原案立』). 목즙이 인출면에 마치 금속 표면처럼 균일하게 착묵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維摩經略疏』 卷3, 제1·3·5엽, 卷9, 제2엽). 목즙이 잘 도포되지 않아서 희미하게 두 번 인출한 경우도 간혹 보인다(『大藏一覽集』). 모두 활자 제작기술과 조판기술을 상쇄하고 있다. 『摩訶止觀科解』의 경우는 도각과 조판기술을 현격히 상쇄하고 있다.

이밖에 번진 엽이 간혹 있어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균일하거나(『授決集』), 고르게 인출 된 경우도 있다(『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 예 산판 중에 이들의 인출기술이 가장 뛰어나 보인다.

5.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목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미숙하여 활자의 제작기술이나 조판 기술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 결과, 완성된 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출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2종(『傳法正宗記』·『天台法華宗學生式問答』)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하급이다.

6.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예산관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중중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叡山版이란 京都 교외의 比叡山에 소재한 여러 사찰에서 慶長6년(1601)부터 元和(1615-1623), 寬永年間(1624-1643)을 지나 正保 2년(1645)까지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약 90여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四周雙邊 또는 單邊, 無界, 10~11行20字, 小註雙行, 大黑口, 3葉花紋雙魚尾, 一切式版心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의 미감은 충분히 세련되지 못한 수준이다. 오래 사용하여 보각한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片仮名 訓點용 활자를 식자한 경우는 예외로 橫列이 정연하지 못하다. 빼뺀어진 문자는 다소 나타나고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균일하지 못한 엽이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적지 않게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중급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京都府立總合資料館編. 『京都府立總合資料館貴重書目錄』. 京都: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971.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內閣文庫編. 『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大谷大學圖書館編. 『大谷大學圖書館所藏貴重書善本圖錄: 佛書篇』. 京都: 大谷大學, 1998.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編.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
東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995.

書誌學研究 第53輯(2012. 12)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78.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錄』. 東京: 東洋文庫, 1934.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日録: 附年間主要増加和漢書目』. 天理市: 天理大學出版部, 1961.

天理大學附屬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錄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市: 天理大學出版部, 1940・1951・1960・1998.

2. 저술·논문류

獅子王圓信師. “叡山版の研究.” 『研究會學報』 第5輯(1932. 7).

長澤規矩也. “叡山活字版について.” 『書誌學』 新6號.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東京: 共立社, 1967.